

잘못을 인정할 때 관계는 다시 꽃핀다

기고

박이슬
문화평론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갈등과 오해 속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오해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려 한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그 책임을 먼저 묻고 싶어진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에 갇히다 보면, 정작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관계의 회복은 상대를 탓하는 데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이 다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마음의 문을 닫는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해."라는 생각에 갇혀, 내 안의 상처만 반복해 되새기곤 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서로의 거리만 더 멀어지게 만든다. 진심 어린 관계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여정'이어야 한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한다. 그래서 순간의 방어기제로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 일 없는 듯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피와 침묵은 문제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씨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상대를 탓한다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아무리 성과가 좋을지언정 함께 걷는 길이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오해, 형제자매 간의 상처도 결국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아이가 실수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점점 틀어지게 된다. 위기를 넘기는 데 급급해 진심을 놓치면, 결국 남는 건 서로에 대한 실망뿐이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 친구와의 약속에 늦은 경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차가 막혀서'라는 흔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핑계가 반복되면, 친구는 '늦은 행동'보다 '성의 없는 태도'에 더 실망하게 된다.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

게."라는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는, 때로 어떤 이유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낸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은 결코 나약함이나 이기고 졌다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성찰할 줄 아는 용기이자,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 발 물러나 내가 놓쳤던 부분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힘이 된다.

관계는 혼자 힘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차이를 이해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가 자라난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아름답게 이끄는 사람이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태도로 다가설 때, 비로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곁에 있는 누군가와 관계가 조금 어색하다면, 잠시 멈춰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진심을 담아 먼저 말 건네보기를 권유한다.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잇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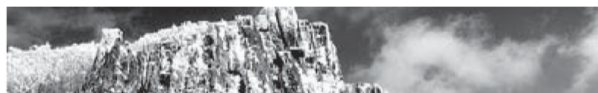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중견수 이정후가 7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 1회 초 수비하고 있다. 이정후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팀은 0-2로 패했다.

AP/뉴시스

서석대



모두 입을 모아 '어른 없는 시대'라 말한다. '어른 같은 어른'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한탄스럽다. 일명 끈대만 가득한 시대에 진정한 어른은 없을까? 몇년 전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새삼 화제다. 경남 진주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지킨 한약사 김장하 선생의 일대기다. 100억원이 넘는 사비로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부를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던 주인공의 삶은 '꼰대 시대'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김장하 선생의 후원으로 성장했던 한 청년 역시 '좋은 어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쳤다"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은 영화 '어른 김장하'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김장하 장학생'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야기이다.

그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마지막 주문은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일단락됐다. 비상계엄 122일 만에 다시 보통의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특히 현재의 8대 0 전원 일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득하

면 될지 고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갓 사법고시를 합격해 감사 인사를 한 자리에서 "값야야 한다면 사회에 값으라"던 선생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던 청년의 마지막 재판은, 우리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받게 됐다.

그도 역시 평생 청렴을 지키며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탄핵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6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평균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발언이 큰 관심을 받았다. 김 선생이 베푼 선한 영향력이 그의 삶의 좌표가 된 셈이다. 청문회 당시 "다

른 현재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문 대통령은 공직 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법관으로서 자유와 평등, 차별을 없애기 위해 헌신했다. 그는 법복을 벗기 전 마지막으로 탄핵 찬반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애썼다. 사회에 되갚음하라는 김 선생의 뜻을 다른 방식으로 몸소 실천하고 있다. '어른 같은 어른'이 그리운 우리사회에서 그의 퇴임은 아쉽다. 퇴직 후 '평균인의 삶'을 살아갈 그를 응원한다.

김성수 논설위원

'지역발전 발판' 대선 공약 반영에 달렸다

미래먹거리 현안 포함시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결정됐다. 다가오는 대선에 발 맞춰 광주·전남도가 지역 미래가 담긴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미래 먹거리를 담보로 한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는 8일 15대 과제·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광주시 대선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AX 실증밸리 사업(인공지능 2단계)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신도시, 양자·휴머노이드 딥테크 산업 기반과 내륙도시 에너지 특화 분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담겼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이날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시킬 공약 75건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은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대 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으로 육성할 방침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전북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한 SOC 공약도 내놨다. 시·도가 내놓은 대선공약 사업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선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움직임조차도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공약 채택도 안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의대 신설이 가시화됐지만 의정 갈등에 또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방소멸시대에 지역 경쟁력과 국민 건강 기본권 확보가 필연적이지만 과거 정부의 무관심과 지역 정치력의 무기력함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선후보들은 지역 공약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실천의지를 이끌어내려는 지역의 노력도 절실하다. 이젠 더 이상 지역민과의 약속인 지역 공약 이행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백기투항' 결단 사회적 투자 배신할 텐가

수업 참여로 책임과 신뢰 세워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 동맹휴학에 나섰다 최근 복학 절차를 마친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 중 대다수가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대생의 수업복귀가 제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그야말로 '무늬만 복귀'였다가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정부와 대학이 '백기투항'이나 마찬가지의 양보를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전남대 의대는 지난달 최종 복학 신청을 마친 재적 학생 중 의과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1학년만은 온라인 형태로 정규수업을 시작하고 이후 수업 참여 상황에 따라 대면 강의로 전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부터 전환된 대면 강의가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불참으로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의대 역시 수업 참여가 저조해 대다수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그쳤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올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원 복귀와 수업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에 또 다른 혼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정부의 약속이 의료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동의하기 어렵다. 환자의 안전과 윤리적 책임이야말로 의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되물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대생의 수업 참여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위한 필수 의무라는 점에서도 집단 수업거부는 명분이 떨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필수의료 강화 등의 정책을 느리지만 추진 중이다. 의대생은 정부를 믿고 더 이상의 파국을 막겠다는 대승적 판단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작은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계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신뢰를 세우는 길이다. 제 목소리만 주장하는 극단적 사고는 그동안 양보하고 참아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배신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